

고석(孤石) 김명엽의 삶과 음악

문성모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한국찬송가개발원 원장)

1. 김명엽의 삶과 음악 활동

김명엽은 1944년 8월 3일 중국 선양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의 압제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그의 가족은 이듬해 해방이 되자 평안북도 정주로 이주하여 1948년까지 살았다. 김명엽은 스스로 정주를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1948년 공산당의 박해를 피하여 그의 가족은 서울로 내려왔고, 갈월동에 부모와 할아버지, 삼촌, 고모 부부와 함께 이웃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6세가 되던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전쟁 초기에 그는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되는 불행을 겪었다. 그 후 그는 자녀가 없던 고모의 슬하에서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레 고모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입문하였다.

1-1. 교회음악가로서의 꿈을 꾸다

김명엽의 음악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 교회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문학에도 소질이 있어서 본래는 국문과로 진학하여 문학도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찍부터 음악인으로 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

김명엽은 명문 기독교 학교인 대광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바하(J. S. Bach)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바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당시 대광고의 음악 교사는 김두완 선생이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던 최고의 교회 음악인이었고, 그의 지도 아래 김명엽은 점점 더 교회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김명엽은 스승 김두완처럼 교회음악가로서 합창 지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합창 지휘과가 없었다. 그는 교회음악을 위한 합창 지휘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았다. 다행히 연세대학교의 신과대학 안에 종교음악과가 있었는데, 그는 성악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본격적으로 노래와 더불어 합창 지휘를 전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명엽은 연세대 종교음악과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음악과장이었던 박태준, 합창 지휘를 가르치던 곽상수, 그리고 테너 이인범 교수 등 당대 최고의 교회음악인들로부터 그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밖에도 김명엽은 박재훈, 장수철, 구두회 등 소위 평양요한학교 삼총사로 불리던 선생들과 접촉하며 그의 교회 음악가로서의 꿈과 실력을 키워나갔다.

연세대에는 또 한 분의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종교음악과는 아니지만 작곡가 나운영 교수가 김명엽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적인 것의 소중함과 또 작곡에 대한 열정을 배운 것이다. 나중에 김명엽은 교회음악 합창지휘자와 성악가로 활동하였지만, 작곡가로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은 나운영 선생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 성가곡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연주하려는 의지도 스승 나운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1-2. 성가대 지휘자 김명엽

김명엽은 대학 시절 원효로 1가에 있는 성광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담임 김동수 목사는 한국 최초의 예배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특별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력에 의한 예배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김동수 목사는 특히 예배 중에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광교회 성가대 지휘자로는 구두회, 김두완 같은 유명인사가 있었다. 김동수 목사는 대학생 김명엽에게 어린이성가대를 맡아 육성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명엽은 1963년부터 성광교회 어린이성가대를 지휘하면서 본격적인 합창지휘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때 그와 함께 한 반주자는 나중에 연세대 교수가 된 조명자였다. 성광교회에서 어린이성가대와 학생성가대를 맡았던 김명엽은 대학 졸업 후 김두완 선생의 뒤를 이어 성광교회 어른 성가대 지휘자가 되어 예배를 도왔다.

김명엽은 무려 29년 동안 성광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다. 그러는 동안 그는 44세에 장로 장립을 받았다. 그 후 그는 1993년 소망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부임했다가, 2001년 새문안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남대문교회 지휘자로 초빙받아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그의 평생은 성가대 지휘자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음악을 사랑하였고 성가대 지휘자라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1-3. 합창단 지휘자 김명엽

김명엽은 경신고, 대광고 교사로 있을 때부터 학교 합창단을 만들어 공연하였고,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때도 합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80년부터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05년부터 국립합창단, 2007년부터 울산시립합창단과 한국장로성가단, 2012년부터 서울시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고, 여러 합창단의 객원 지휘자로 연주하는 등 그의 합창지휘자로서의 경력은 화려하다.

김명엽의 합창지휘자로서의 최고 업적은 서울바하합창단을 창단하고 수많은 연주를 통하여 한국교회음악의 수준을 높인 것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회음악 연주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

김명엽은 귀국 후에 제자들 80명을 모아 1990년 10월 2일 서울바하합창단을 만들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성광교회에서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연주함으로써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는 교회음악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성가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명엽은 “바하합창단은 반드시 교회에서만 연주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음악회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는 이 합창단을 통하여 많은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다. 구두회, 박재훈, 김두완, 이동훈, 이용주, 주성희, 이영조, 이기경, 한태근, 문성모 등의 작곡가들이 김명엽의 서울바하합창단이 주최한 <성가의 밤>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1-4. 작곡가 김명엽

1963년 7월부터 성광교회 어린이성가대를 맡은 김명엽은 어린이를 위한 성가가 많지 않음을 깨닫고 스스로 작곡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또 하나의 기회요 축복이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유명한 어린이 찬송가가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이다.

그가 몇 개의 어린이 찬송가를 만든 것을 보고 김두완 선생은 특별한 제안을 하였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에서 매년 여름 제작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교제의 집필자로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더 많은 작곡을 하게 되었고, 그가 만든 어린이 찬송가들은 교제 안에 수록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또한 이 총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강습회를 통하여 그의 노래를 직접 가르치고 소개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나의 한가지 소원> 같은 인기 있는 어린이 찬송가도 그가 작곡한 것이다.

작곡가 김명엽은 2023년 합창 지휘 6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 찬송가 - 나의 한가지 소원』을 출판한다. 여기에는 모두 127곡의 찬송가와 5편의 어린이 노래극이 포함되어 있다. 곡 대부분은 1974년부터 25년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발행 『교회학교 계단 공과』, 『여름성경학교 교본』, 『겨울성경학교 교본』에 교재로 실린 노래와 『기독교 교육』, 『교사의 벗』, 『어린이 말씀회 노래집』에 발표된 노래이다.

김명엽이 작곡한 곡들이 회가 등 다른 분야에 더 있지만, 그는 주로 어린이 찬송 작곡가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지켰고, 이 분야에서 그의 작곡가로서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교육자 김명엽

김명엽은 서울장로회신학교(현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윤학원 선생의 추천으로 인천 송의감리교회 부설 음악원 강사로 가르쳤다. 또한 추계예술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이다.

교육자 김명엽의 최고의 업적은 교회음악아카데미를 창립하고 중단없는 열정으로 교회음악 세미나를 계속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엽은 1990년 3월 3일 교회음악아카데미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8.14.-16.) 제1회 교회음악 세미나(남원 지산향육원)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인 2020년(1. 30-2. 1)까지 44회나 교회음악 세미나를 이어갔다.

이 세미나는 교회음악아카데미 산하의 ‘성가지휘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으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성가대 지휘자는 물론이고, 대원들과 목회자에게도 교회음악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쳤다. 수업내용은 교회음악사, 교회음악문헌, 찬송가학, 교회력, 선곡법, 지휘법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교회에서 연주할 합창곡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가지휘 연구모임’에 수백 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지만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적정한 실력을 갖추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할 만큼 김명엽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교회 음악 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명엽의 교육 방법은 배우는 자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즉 자기의 음악적 고집이나 신념을 따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원리와 정신을 가르치고 각 사람이 처한 현장에서 스스로 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그에게 종속된 제자가 없다. 음악 세계에서 제자를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수인처럼 부리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자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사단을 만들고 아성을 쌓아 그 안에 군림하며 왕 노릇을 하는 잘못된 선생들이 있지만, 김명엽은 달랐다. 그도 자유인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자유인으로 살도록 교육시켰다. 이는 한국교회 음악계의 신선한 바람이고,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김명엽은 은퇴 후에도 교육자로서의 삶을 ‘유튜브’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를 교실

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SNS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다.

1-6. 학자 김명엽

김명엽은 ‘교회음악사’에서 발간하는 「교회음악」이라는 잡지에 글을 올림으로써 집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교회음악사는 고(故) 박재훈 목사가 만들었고, 그의 미국 이민 후에는 전희준 장로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김명엽은 이 잡지에 “교회력에 의한 성가”라는 제목의 연재를 수록하였다. 이 제목은 그가 처음 창안한 신조어였고, 한국교회에 신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김명엽은 강의한 것을 항상 글로 남긴다.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십여 권이나 된다.

김명엽은 특히 찬송가 연구와 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김명엽의 찬송 교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책이 벌써 7권째 발행되었다. 그가 찬송가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5년 C3TV에서 찬송가 해설을 의뢰한 때부터이다. 그렇게 시작한 찬송가 해설이 「한국장로신문」에도 연재가 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500회를 넘기게 되었다.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모아지며 책으로 발행된 것이다.

김명엽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찬송가와 교회음악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였다. 종교음악실(CBS), ‘성가의 고향’(CBS FM), ‘김명엽 교수의 찬송 교실’(C3 TV), ‘찬송 교실’(onmam.com), ‘김명엽의 찬송가 스토리’(극동방송)등의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새롭게 하소서’(CBS), ‘내가 매일 기쁘게’(CTS), ‘이홍렬 토크 쇼’(CGN) 등 TV에 출연하였다.

김명엽은 여러 신문에도 글을 연재하며 살았다. 현재 한국장로신문에 ‘찬송과 함께하는 교회음악교실’이 연재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기독교 주간지 ‘크리스천 라이프’에 ‘김명엽의 찬송 교실’, ‘기독일보’에 ‘김명엽의 교회음악 이야기’가 연재 중이다.

그의 저서로 성가대 지휘자를 위한 『지휘기법』과 『김명엽의 찬송 교실 1-7권』, 음악 예배 예식서로 『찬송으로 드리는 음악 예배』, 『성탄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성탄의 찬가』 등이 있다. 그리고 그가 편곡한 『찬송가 데스칸트』가 있다.

번역 성가집으로는 《이집트의 이스라엘인》(Handel), 《대영광송》(Vivaldi), 《대관식 미사》(Mozart), 《신앙고백 미사》(Mozart), 《테데움》(Mozart), 《G장조 미사》(Schubert), 《G장조 미사》(W.Müller), 《장엄미사》(Gounod), 《십자가상의 죽음》(Stainer), 《감람산에서 갈보리로》(Maunder),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Franck) 등의 악보집이 있다.

김명엽의 삶과 음악에 대한 기사로는 「국민일보」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경의 열매’ 등이 소개되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교회음악 전문 유튜버로서 ‘김명엽의 찬송 교실’을 방송하고 있다.

2. 김명엽의 교회음악론

2-1.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다.

김명엽은 찬양대라는 용어를 성가대로 환원시킬 것을 주장한다. 거룩할 성(聖)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용어이다. 성경, 성도, 성전 등과 같이 교회의 노래는 성가(聖歌)라고 해야 맞다는 것이다.

김명엽은 모 교단 총회가 성가대라는 용어를 찬양대로 바꾸자고 결의한 후부터 교회의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는 성가라는 용어가 일본 종교 신도이즘(神

道)에서 왔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다. 그는 성가라는 용어는 라틴어 무지카 사크라(musica sacra) 즉 ‘성음악’(聖音樂)의 번역으로 당연히 성가대라는 용어가 바르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찬양대라는 용어가 성가대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성가대라는 용어는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가 종파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용어는 바로 ‘성가’요 ‘성가대’이다. 여기에 ‘성가대’라는 용어가 귀한 이유가 있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한국의 종파들은 같은 신앙공동체이면서도 용어 사용은 통일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과 하느님, 예배와 미사, 목사와 신부, 성경과 성서, 설교와 강론, 세례와 침례와 영세, 대림절과 대강절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므로 써 부끄러운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유일하게 통일된 용어는 ‘성가대’였다.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성공회와 정교회가 지금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가대라는 용어는 에큐메니컬 적인 측면에서 아주 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용어이다. 한국교회가 김명엽의 성가대 론을 귀담아들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

2-2. 성가대 지휘자는 음악 분야의 목회자다.

김명엽은 성가대 지휘자의 자리를 목회자의 역할에 버금가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성가대 지휘자는 담임 목사와 공동 목회를 하는 위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설교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음악이기 때문이다.

김명엽은 성가대 지휘자보다는 음악 감독이라는 칭호를 교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성가대의 찬양을 지휘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하지 말고 그 교회의 예배와 목회 전반에 걸쳐 음악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즉 음악 분야의 목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자로서 교회가 세워주고 우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을 독일에서는 칸토르(Kantor)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는 하잔(Chazzan)이라고 한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전임 사역자로 일한다. 그리고 교회는 음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칸토르에게 일임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칸토르 자격시험은 아주 엄격하고 ABC 등급으로 나누어 고도의 음악적 기능과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엽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음악 감독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예배와 목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명엽은 남대문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박태준 선생을 예로 들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진 진정한 성가대 지휘자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박태준은 남대문교회 지휘자로 근 30년 가까운 세월을 헌신하였고, 그의 인품과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신앙인이었다. 교회에서는 그를 장로로 추대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박태준은 장로 되기를 끝내 사양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은 성가대 지휘자이고, 성가대 지휘자는 목회자이므로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김명엽은 남대문교회가 박태준 같은 위인에게 음악 감독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성가대 지휘자들이 박태준 박사의 정신으로 일할 것을 주문한다.

2-3. 찬송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김명엽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이다. 그는 루터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고 인간은 찬송으로 응답한다.”라고 주장한다.

김명엽은 찬송은 신앙고백이고, 그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생활이라고 주장한다. 찬송은 신앙을 고백하는 가사가 중요하다. 가사에 복음이 담겨야 하고, 찬송에 신앙고백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닌 자기도취나 소원성취만을 위한 노래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엽은 주일 예배 중에서 찬양도 위로부터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일 예배순서에는 인간이 받는 부분과 드리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찬송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을 받고 감사로 드리는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죄를 용서받고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마땅히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러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이 이에 응답하므로 시작된다. 찬송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은 신앙 고백적이어야 한다. 즉 내가 나의 것으로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감사의 응답인 것이다.

2-4. 성가대석은 스테이지가 아니다.

김명엽은 스승 박태준의 “성가대석은 스테이지(stage)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예배 중에 성가대가 하는 음악은 무대음악이 아니며, 성가대원이나 지휘자는 무대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음악 행사에도 이 주장을 고수한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음악 예배를 한다고 성가대석을 벗어나 중앙에 무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성가대 가운을 벗어 던지고 무대음악처럼 유니폼을 따로 입고 성가를 하는 것도 안 될 말이고, 지휘자가 무대 음악가처럼 나비넥타이나 연미복을 입고 성가를 지휘하는 것도 거부한다. 성가대는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로 진정한 교회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김명엽은 연주자들도 교회음악을 연주한 후에 박수를 기대하려는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성가곡의 말미를 화려하게 고음으로 처리하여 박수를 유도하는 일은 본분을 벗어난 태도라는 것이다.

김명엽은 이 점에 대하여 철저하다. 그는 교회 예배 중 영상팀에게 지휘하는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찍지 말라고 권고한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음악 행위로 박수를 받는 것은 교회음악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한국의 성가대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즉 무대 음악화되어 버린 것이다. 성가대의 노래 뒤에는 마음으로부터의 감동이 “아멘!”이라는 감탄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요란한 박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2-5. 교회음악인의 십계명

김명엽은 ‘교회음악인의 십계명’이라는 독특한 발상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의 교회음악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회음악인이 세상 음악인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 하나님과 친근하라.

교회음악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모시고 음악

을 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찬양도 불가능하다.

2) 음악가가 되지 말고 교회음악가가 돼라.

음악가는 자신을 위해 음악 활동을 하지만, 교회음악인은 하나님을 위해 음악 활동을 한다. 교회음악인은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음악을 대하는 사람이다. 세속음악인과 다르다는 거룩한 구별의식이 요청된다.

3) 가진 재능을 자랑하지 마라.

교회음악인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음악 활동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교회음악인은 재능이 있다고 과시하거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교회음악인은 오히려 받은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바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4) 믿는 자에게 본이 돼라.

교회음악인은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주일 성가대 연습 시간에 시간을 잘 지켜서 시작하는 것도 본이 되는 훈련이고, 정한 시간에 연습을 마쳐서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도 본이 되는 것이다. 성가대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다른 일을 더 중요시 하여 자리를 비우는 것은 본이 되지 못 하는 행동이다. 생활에도 모범이 되고, 언행 심사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5) 시인이 돼라.

교회음악을 잘하려면 가사, 즉 시에 대하여 음미하고 연구해야 한다. 교회음악에서 시는 몸이고 음악은 거기에 걸친 옷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잘하려면 가사를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노래해야 한다. 가사의 뜻도 모른 채 노래만 하는 사람은 교회음악인이 아니다.

6) 철학 있는 지도자가 돼라.

교회음악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아야 함은 물론이고, 예배학, 교회력, 교회음악사, 찬송가학, 연주법, 민족 음악학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성경도 모르고 찬양해서는 안 된다. 음악도 모른 채 노래해서도 안 된다.

7) 교회 예배 스태프(Staff)로의 주인의식을 가져라.

음악에 관한 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성가대 조직이 지휘자 위에 대장이 있고, 대장 위에 음악부나 예배부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바람직한 교회음악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음악인이 이런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성가대를 주도해야 한다.

성가대 지휘자는 주인 의식 속에서 연간 성가 계획을 미리 짜고, 이를 관계자들과 의논하여 설득시켜야 한다. 또한 지휘자는 대원들 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성가대원의 보스(Boss)가 되지 말고 리더(Leader)가 되어야 한다.

8) 찬양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교회음악을 하는 성가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너무 수준 높은 것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는 수준에 맞는 쉬운 찬양을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찬양의 결과가 사람의 칭찬보다는, 은혜받았다는 고백이 더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목소리 가운데 마음을 담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목소리의 기교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마음으로부터의 신앙고백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담겨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소리를 통해 전달되어야 진정한 교회음악이다. 자기 믿음의 고백이 담기지 않는 찬양은 성가가 아니다.

10) 성가대원을 교육하라.

지휘자는 일회성의 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성가대원들을 진정한 교회음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교인들에게도 교회음악이 무엇인가를 계몽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3. 인간 김명엽을 말한다

3-1. 명예로부터 자유한 음악인

김명엽은 박사학위가 없다. 그 흔한 명예박사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았다. 그는 이런 점에서 자유인이다. 그가 원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박사학위 하나쯤은 어디서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대한 갈증이나 아쉬움이 없었다.

김명엽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자리다툼에 휘말린 적이 없다. 또한 어떤 조직의 자리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사람을 동원하여 선동한 적도 없다. 김명엽의 음악인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뒤에 붙은 협회의 장(長) 자리는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과 ‘한국대학합창연합회 회장’, ‘언더우드 기념 새문안 음악교육원장’이 전부이다. 그는 회장이나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탐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없었고, 이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없이 묵묵히 소신대로 음악가로서의 길을 걸어갔다.

김명엽에게는 화려한 수상 경력도 많지 않다. 서울시 문화상(2017년)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상(2020) 정도이다. 그리고 2023년 7월 9일 대구 남산교회에 그가 작곡한 <교사의 노래>(신창호 작사) 노래비가 세워졌다. 한국 합창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의 공로를 생각하면, 어찌 이리도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아왔는지 놀라울 뿐이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고, 어떤 자리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유인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과 같은 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음악인으로 살아오게 하셨다.

3-2. 재물을 다스리며 사역한 음악인

김명엽은 부자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음악 활동을 하였다. 그가 교회음악 세미나를 처가가 있는 전북 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재물을 털어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무슨 일에도 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도 주신다는 믿음으로 버텼고,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

그에게 생활할 수 있는 재물 이상이 생기면 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해 왔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재물을 가진 자의 후원도 보내주셔서 비전을 이루게 하셨다.

김명엽은 돈을 생각하고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이 전혀 나온 적이 없다. 그에게는 항상 해야 할 일이 먼저였고, 이에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근심 없이 계획한 바를 시작하고 진행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면 그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교회음악 아카데미>도 <서울바하합창단>도 모두 그렇게 만들어지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명엽은 사도바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6:10)로 살았다.

3-3. 헌신을 실천하는 음악인

김명엽에게 헌신은 체질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돈을 위해 음악을 하지 않았고, 어떤 공연이나 활동도 돈을 전제로 시작하지 않았다. 오직 받은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세로 일해 왔다.

그는 성광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무려 29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의 명성과 경륜에 따라 그보다 크고 조건이 좋은 교회성가대 지휘자로 옮길 수 있었지만, 헌신이 기초가 된 그의 섬김에는 크고 작은 교회의 구분이 없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의 체질화는 그의 장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장인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의 부탁을 받고 남원 근처의 전쟁고아들을 모아 먹이고 입히며 자식처럼 돌보았다. 아이들이 자기 생일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며, 모두 5월 5일을 생일로 정하였는데, 장인의 친자식들 생일도 모두 5월 5일로 바꾸어 버렸단다.

김명엽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음악이고, 이를 한국교회에 헌신의 자세로 나누는 것은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처음 교회음악 세미나를 남원에서 개최했을 때도, 누구의 초청이나 사례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전단지를 만들고 사람을 초청하여 불모지 전라도에서 교회음악 교육을 시작한 것이었다.

김명엽의 머리에는 항상 장인의 고아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 그는 의사가 오지에 가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심정으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음악적인 나눔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에서는 전국의 교회음악인들을 불러 모아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생겼지만, 김명엽은 역발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이 점에서 김명엽은 한국교회음악사의 빛나는 보석이다. 그의 자리를 대신할 음악가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정신을 이을 교회 음악인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쉽다.

3-4. 오직 하나님께 영광

김명엽은 아침저녁으로 3번씩 애창하는 찬송이 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이다. 그는 이 찬송을 통하여 온 생애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하고 진실한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기도이다.

그에게 오늘날도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요, 삶의 목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이는 칼뱅이나 루터의 고백이요, 바하와 헨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